

근·현대 불교사연구 '구술사' 방법 도입해야

선우도량 토론회

소리를 통해 역사에 기록된 이면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내 보자는 취지에서다. 반면 10년 남짓의 역사를 갖고 있는 근현대 불교사 연구에서는 아직 문헌자료의 정리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연구자도 5-6명에 불과하다.

정사(正史)로 삼을 '교과서'조차 없는 데도 구술사가 유효한가란 물음에 대해 철오스님은 "정리된 정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구술사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철스님은 "22인의 증언..."에서 담은 종단 정화사만 보더라도 정화사에 대한 관심과 연구도 미진할 뿐더러 당시 생존자들의 증언조차 정리되어 있지 않다"며 "당시 생존자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더 절



선우도량 한국불교근현대사연구회는 20일 조계종 교육원 회의실에서 '근현대 불교사와 구술사'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문헌자료부족 현실에 자료축적 큰 의미

검증·검토통해 학문적 객관화작업 필수

실한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성전 스님은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하는 화두를 던졌다. 구술이 과거에 개인이 경험한 일 대한 현재의 기억이다 보니 과거를 온전하게 담아내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기억의 편린들이 오히려 올바른 역사 인식에 혼란을 줄 위험은 없겠느냐는 것이다. 김형식 박사는 "자료 축적의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전제

한 뒤 "학문적 연구의 자료로 삼기 위해서는 씨름, 남쪽을 역인 각종 회고나 증언의 비교 등을 통해 학문적 검증과 검토를 거친 객관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박사는 "그간 불교계는 각종 회고와 증언을 광범위하게 활용하면서도 학문적 작업은 생각하지 못했다"며 "지금껏 근현대 불교사에서는 문헌적 근거를 갖고 나타난 역사와 구술에 의한 역사 서로 섞여 있었다고 할 수 있는

데 여기에는 신학적 '입소문'의 요인도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월 발간된 <22인의 증언...>에 대한 평가에서 동철스님은 "앞으로도 이 작업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해 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택림 박사는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특정 사건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내린 상태에서 그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질문들이 많아 구술자를 통제하고 있다"고 했고, 이선형 씨는 "구술자가 아니라 주변의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묻는 방식이 많아 구술자가 정보제공자의 위치로 하락하는 듯하다"며 "물기 보다 들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덕 강사 주장

"불교관련 인문학 자료 디지털화 기초단계부터 전문가 참여 필요"

용어표기·체제 통일작업 선행토록

다른 판본·번역본과 호환성 지녀야

기초자료의 정보화→활용→문화산업에서의 재창조의 단계로 나눈 김씨는 "현재의 수준은 아직 정보화와 CD-ROM 발간 등 단순 활용에 머물고 있다"며 "이마저 인문학자와 무관하게 진행된다 보니 학문적 성

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디지털화의 성과 여부 시스템의 기능보다는 자료의 정밀성에 의해 좌우된다"며 "유용한 정보 검색을 위해서는 용어 표기나 체제를 통일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디지털화 작업의 결과물들이 다양한 방식의 기술을 이용한 것이라 동일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다른 판본이나 번역본을 디지털화 하더라도 기술적 측면에서는 상호호환성을 지녀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덕 씨는 역사 자료를 문화 콘텐츠로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향원의 시대별 변천과정. 왼쪽부터 10세기 이후 13세기까지 4단계의 토착화 과정을 보여준다.

고려시대 유행했던 '향완'

당대 불교용 향로가 원류



기원이 새겨진 은입사 향완 가운데는 가장 오래된 표창사 대정17년(1177)명 금동은입사 향완(표창사 소장).

법당의 부처님께 향을 피워 공양할 때 쓰는 향로는 필수적인 공양구 가운데 하나다. 특히 그릇 모양의 몸체에 나팔 모양의 높은 받침대가 있는 특이한 형태의 향로

그렇다면 고려시대 향완은 어디에서 그 형태가 기원한 것일까? 아쉽게도 삼국시대 토기에서 유래했을 것이라고만 추정할 뿐 구체적 논의가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주경미(서울대 강사)씨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최근 펴낸 <미술자료 68집>에 기고한 논문 '고려시대 향완의 기원'에서 "고려시대 향완의 형식적 기원은 중국 당나라 말기 오대 시기에 사용되던 불교 의례용 향

완향 막고글 벽화에 표현된 불교 의례용 향로의 형태 변화와 불교조각이나 기와에 표현된 통일신라 향완까지도 비교 대상에 넣었다. 그 결과 주 씨는 "기본적인 형태는 토기에서 발달했지만 실질적인 향완으로의 발전은 중국 당나라 말기 오대 시기에 사용되던 불교 의례용 향로의 영향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국 당대 향로에서 보이는 다단형 받침대와 주발형 몸체 등의 형태가 통일신라 말기부터 한국에 전해졌으며, 10세기 이후 4단계의 토착화 과정을 거친 후 12세기 중반 무렵 현존하는 향완과 같은 독자적인 형태로 발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향완의 표면에 각종 문양을 새겨 넣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다단 받침대·주발형 몸체 통일신라에 전래

10세기후 4단계 토착화과정 거쳐 현상태로

를 '향완(香碗)'이라 하는데, 고려 시대에 크게 유행해 조선시대까지 그 전통이 이어져 사찰에서 공양구로 사용됐다. 고려시대 금속제 '향완'은 은입사 장식이 표면에 새겨져 있어 뛰어난 금속공예품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로"라는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 주 씨는 고려시대 향완의 형태에 대한 기존 학설이 한반도에서 출토되거나 전래된 유물만을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하고 현존하는 8세기 이후의 중국 향로와의 비교를 시도했다. 현존 유물은 아니지만

주 씨의 이런 주장은 지금까지 향완이나 향로 연구에 있어 공백기로 남아 있던 9-12세기를 메웠다는 데에도 큰 의의가 있다. 현존하는 향완의 대부분이 12세기 이후 제작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한강유역 불교유적 56개소

경기도 박물관 종합학술보고서 '한강'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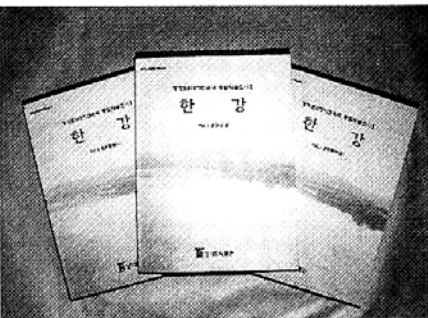
한반도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한강 유역에는 불교유적 56개소를 비롯해 고고유적 172개소와 관방유적 64개소, 유교유적 330개소 등 모두 646개소에 898개의 문화유적이 분포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강 유역의 자연·인문 환경과 문화유적, 민속문화 등을 집대성한, 경기도박물관의 종합학술보고서 <한강>(사진)에서

밝혀진 것이다. 경기도 가평군과 남양주시, 여주시, 이천시, 광주시, 양평군, 하남시, 구리시, 고양시, 파주시 등 한강 주변의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2001년 3~12월 조사가 이뤄졌다.

불교유적 가운데는 사적 382호인 고달사지 등 절터 19곳이 포함돼 있으며, 국보 4호 고달사지 부도를 비롯해 29점이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특히 국보 1점, 보물 11점 등이 지역 국가지정문화재 12점 전부가 불교문화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경기도유형문화재 10점과 기념물 3점, 문화재자료 4점 등 17점이 지방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국보 1·보물 11점 등 지정문화재 12점

기존의 조사보고서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던 불화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불화의 도상이 무슨 내용인지를 밝히고 화면구성, 필선, 색조 등에 대한 특징을 통해 제작연대를 추정했으며, 몇몇 불화는 불화를 그렸던 금어(金魚)에 대한 설명을 붙였다.



梵 鍾

범종이 스스로 운다(自鳴梵鐘)!!
아직도 잠자는 범종은 없습니까?
아직도 울리지 못하는 범종은 없습니까?
범종은 있으나
질 사람이 없는 범종은 없습니까?
걱정은 이제 그만 던지십시오.
울어라! 한번만 운 하시면
봄·여름·가을·겨울,
원하시는 시간에!
원하시는 횟수대로!
영원히 크고 크게
울려 메아리 칠 것입니다.
離苦得樂을 이루고!
破邪顯正으로 맑고 밝은 氣運이!
부처님 眞理를 宣揚할 것입니다.
*年內로 하시는 寺刹은 縁가로 해 드립니다.
시스템 시설은 선착순입니다.
합장하고 소식을 기다리며
佛日增輝 法輪常轉을 千拜萬拜!!!
부영공업사 특수기계제작부
대표 신 현 직 부처님 품에서 發願祈禱!!!
☎ : 033-562-1535
H·P : 011-369-2732

당뇨·고혈압

당뇨병 혈당강하 조절제

국내약초 100%

아생약초 90%

生人精

▶혈액이 개선되며, 신체의 이상이 정상으로 되며, 비만도 해소됩니다.
▶100%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약초이며, 90%는 아생약초로 사용하였습니다.
▶생인정은 일부는 달고 일부는 쓴맛이 배합하여 생인정인 약재의 첨가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생인정은 식용으로 먹는 약재만을 사용함으로써 부작용이 없습니다.

덕을 시 나타나는 현상

- 소변량이 증가하고 소변횟수가 줄어듭니다.
- 신장기능 약화에 의한 불쾌감이 해소됩니다.
- 불면증이 없어집니다.
- 관절의 통증과 불편이 없어집니다.
- 일반적 무기력감과 피로가 없어지고 원기 회복이 됩니다.
- 거친피부가 고와집니다.
- 고혈압 증상이 개선되고, 어지러움과 부종이 없어집니다.
- 대변이 황금색으로 변하고 대소변을 보고난 후에 시원한 느낌이 나타나고 방귀냄새가 없어지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 복용초기에 눈물이 나오는 느낌이 오거나, 위장이 나쁜 사람은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나타나지만 점차 없어집니다.
- 간혹 체질에 따라 이른 곳에 통증이 더욱 심해지다가 점차 없어집니다.
- 위의 설명은 체질이 개선되는 현상임으로 안심하고 꾸준히 복용하시면 정력과 활력이 솟아납니다.
- 신약을 복용중인 사람은 생인정을 함께 복용하면서 점차 신약을 줄여 15일 정도 경과후 신약을 완전히 중단합니다.
- 생인정 복용시 대부분 2주 이내에 개선현상이 나타나고, 간혹 체질에 따라 늦게 나타나는 수도 있습니다.
- 복용중 개선현상이 의심되면 구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복용분과 비스포장비 5원권을 공제하고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1개월분 ₩150,000
생인당
주은 및 상담 (054)281-0544

수행의 테크닉 비법 수련

(불교 수행 지도자 과정)

- ▶ 참선, 위빠사나, 염불, 독경, 사경, 단전호흡 수행자가 중단 전 차크라가 막혀 상기되어 머리 뜨겁고 아프고 가슴 답답하고 명치 빠근하고, 목이 막힌 현상을 스스로 간단히 풀수있는 비법의 테크닉을.
- ▶ 컨디션이 좋을 때처럼 항상 머리, 이마, 눈은 시원하고 몸은 따뜻한 수승화기를 20분 이내에 누구나 스스로 체험!
- ▶ 호흡에 맞춰 절하는법, 와선, 간단한 동작을 취하면 저절로 복식 단전 호흡이 되는 비법만이라도 배우시면 허리 디스크, 상기병, 불면증, 우울증, 당뇨병, 황병, 수족냉증, 두통, 감기몸살, 피로를 단시일에 극복하게 되는 확신을 자신있게 드립니다.

※ 수련내용 : 호흡에 맞춰 절하는법, 참선, 염불, 독경, 위빠사나 (동국대 입승택 박사의 실참실수), 행선, 와선, 자동단전호흡, 부처님 감사수행, 업장소멸 진참회, 혼침 꿈극복, 도인체조 108의 테크닉을 단계별로 철저히 배움

■ 일시 : 2002년 9월 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 3시

● 장소 : 서울 강남 청담동 늘봄공원 시내하우스 뒤 청호불교문화원 7층 대법당

■ 대상 : 누구나 (불교교양대학이상 수료자 우선순위)

■ 문의 : 경기도 양평군 단원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 법왕정사

■ 전화 : 031) 771-7745 · 6736 · 7038
011) 9088-7745 · 011) 416-2354

음양체형관리 자원봉사자 모집

서울 서초구 소재 보현정사(주) 보현스님께서는 현대의 선·후천성 기형, 비만, 체형의 변화에서는 병상종들이 음양체형관리에 의하여 건강을 되찾고 체력, 활력이 개선되는 것을 체험하고 자기 자신과 가족의 건강은 물론 양로원, 장애인, 고아원 등의 소외된 국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여 스님의 수행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음양체형관리에 공경증이 있으신 분들은 (주)음양피부체형연구소 홈페이지 www.skin-reform.co.kr(com)/음양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육 안내

- ▶ 모집기간 : 수시모집
- ▶ 교육기간 : 매주 수요일
오전반 AM 10 ~ PM 12시 30분
오후반 AM 7 ~ PM 9시 30분
- ▶ 교육비 : 보현정사 추천에 의하여 무료교육
- ▶ 교육장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9-4 진술빌딩 B1 (주)음양피부체형연구소
- ▶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직장제작증명서 1통 (전업주부아닌 경우)
- ▶ 상담 및 문의처

보현정사 포교원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6-7호 이화빌딩 5F
전화번호 : 02) 583-1080, 02) 521-1415
H · P : 016) 321-1080
※ 현 피부미용이나 비만 체형관리실 운영하시는 분은 제외